



# 협회소식

## KOREA SWINE ASSOCIATION NEWS

### 본회,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 하향 조정해야”

- 환경부에 검찰청 가축분뇨 단속 농가 억울한 피해 안입도록

본회는 기존의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가 8.6ℓ로 설정되어 있던 것을 농림부에 하향조정 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예산지역 등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실태를 단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본회는 가축 배출원 단위가 현실과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양돈농가들이 검찰청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기존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는 최근 돼지 사육방식 및 축사구조의 변화와 분뇨처리 환경변화에 따른 세척수 사용 급감 등으로 인해 이 단위를 하향 조정하면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회는 지난 6월말 이와 관련해 배출원 단위 조정을 농림부에 요청한바 있으며, 환경부와 농림부는 공동으로 축산분뇨 종합관리대책 추진기획단에서 이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

따라서 본회는 돼지 분뇨 배출원 단위가 재검토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청에서 단속시 이러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환경부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 본회, 친환경 양돈업 직불제 보조금 확대 건의

- 2013년까지 축산업 등록 농가중 30% 이상 참여 유도토록

본회는 최근 농업·농촌종합대책 직접지불제 세부추진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본회가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농가의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에의 자율적인 초기 참여를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실시 후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2013년까지 축산업 등록 농가중 20%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안을 '30%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의 소득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참여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기본 프로그램 이행 비용지급을 1,300만원/호 한도내 지급한다는 것을 4,000만원/호 한도내 지급한다는 것으로,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서는 호당 200만원에서 호당 500만원 한도내 추가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회는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해 사육 밀도를 등록제 기준대비 10~30%로 완화하고

지급요건 위반시 제재기준을 위반사실 발생횟수에 따라 규제하되 1회 위반시 시정 지시, 2회시 직불금 20% 감액, 3회시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제재기준 위반사실 발생횟수를 3회로 증가시키고, 친환경축산시스템 정착을 위해 추진계획 내용중 06~08년 '도약단계'를 '발전단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단계에서 '질병 모니터링 구축사업'을 추가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 본회, 농림부와 사육단계 HACCP 도입 본격 추진

본회(회장 최영열)는 9월 22일 오후 3시에 본회 회의실에서 우수농장 인증제 시범사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영열 회장과 김동환 부회장, 박봉균 서울대 수의대학 교수, 한정희 강원대 수의대학 교수, 농림부 이상진 사무관, 윤희진 (주)다비육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가 준비하고 있는 '정정돈육생산 우수농장 인증제' 등 농장 사육단계의 HACCP 도입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양돈장 HACCP 및 품질인증제에 대한 동향과 함께 본회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장인증제'와 관련된 주요추진상황과 정부의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검토안을 청취하고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HACCP 도입안과 본회(안)을 비교했으며, 농장 사육단계의 효율적인 HACCP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농림부와 본회가 협력하여 사육단계 HACCP 도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돼지고기에도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 최영열 회장, '농가소득 안정' 및 '소비자 알 권리' 부여해야

6월 1일 이인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에서 상정됐다.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관련 본회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도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각 지부에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식육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돼지고기도 포함되어야 함을 적극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돼지고기는 현재 2002년 농림부 발표자료에 따라 1인당 소비량이 쇠고기나 닭고기보다도 두배 이상 많고, 2001년 농림통계연보에는 축산업 총생산액 중 양돈업 총생산액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입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도 많아 원산지 표시제에 포함되도록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적용돼야”

“동물약품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양축농가에 저렴한 약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9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 주관으로 개최된 '동물약품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본회 최영열 회장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농림부는 영세율 적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회는 또한 동물약품관리의 조직 및 기능

이 취약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동물약품 허가 및 검사(정)기관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아울러 농촌지역에 개업수의사가 부족하다며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도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농림부 가축방역과는 동물약품 소속 수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도축장에서 잔류물질 검사시 위반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에 동물병원의 개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등을 강구해야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돼지 성장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천연 대체 물질 연구 필요”

- 본회, '2005년 축산시험연구 과제 제안서' 제출

축산연구소가 축산 발전을 위해 각계에서 시험연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및 의견에 대한 제안서를 받음에 따라 본회는 축산연구소에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제안서를 제출했다.

본회가 제출한 '2005년 축산시험연구 과제 제안서'에서 본회는 우선 PMWS, PRRS, 돈열 등 질병으로 인한 피해와 계절적 변화요인에 따른 성장률 및 발병률 변화 폭이 크다는 등의 양돈업 문제점을 밝혀, 돼지 성장 및 면역력 향상을 위한 천연 대체 물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본회는 최근 WTO, FTA 등으로 수입 돼지고기 유입량이 늘면서 수입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가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특별단속이나 원산지 표시제 등의 방식보다 더욱 체계적이

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내산 및 수입산 돼지고기 식별 진단기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밖에 사료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육안판별 등으로 배합사료의 질을 판정하는 방법 외 실용진단기의 개발과 보급이 실행되어야 하고, '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약취 방지법에 따라 양돈장의 냄새 저감을 위한 현장 매뉴얼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본회, 지역별 양돈농가 교육 및 행사 지원

본회는 2004년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양돈농가에 분노, 질병, 사양 등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한다.

전국 양돈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함은 물론 양돈농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10월 1일~12월 31일 3개월간 지원될 계획이며, 본회 지부(회), 양돈조합 등 교육을 필요로 하는 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세미나 및 행사시 강사료 및 교재, 플래카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8월 본회가 세미나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양돈농가의 주요 희망 교육 분야인 질병, 수급 및 돈가 안정, 정책·경영, 분노, 번식·육종·인공수정, 육가공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련 유명강사를 섭외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및 행사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의 안전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 양돈장 주요 질병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등 지역 양돈농가들이 원하는 교육

과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농장 및 도축장 출입시 소독관리가 핵심”

– 본회 설문조사 “돼지 출하차량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 구분             | 응답률 (%) |
|----------------|---------|
| ● 농장 출입시 소독관리  | 24.8%   |
| ● 도축장 출입시 소독관리 | 26.1%   |
| ● 출하차량 기차 소독관리 | 15.6%   |
| ● 도축장 잔여물 소독관리 | 17.8%   |
| ● 공무원의 지속적 단속  | 4.1%    |

최근 전국에 있는 일부 도축장에서 출하차량에 대한 세차와 소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

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돈사내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출하차량에 대한 세차 및 소독과 관련 9월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돼지 출하차량의 세차 및 소독시설 운영, 가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질병 전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귀하는 철저한 돼지 출하차량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및 도축장 출입시 소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가 314명으로, 이 중 ▲농장 출입시 소독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8명으로 24.8%를, ▲도축장 출입시 소독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2명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했다.

한편 출하차량 기사의 소독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22%를 차지했으며, 양돈장 관리인의 소독의식이 17.8%, 도축장

관계자 소독의식에 4.8%, 공무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가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비조리사, 맛도 다양한 돼지고기 요리 직접 경험”

– 서울보건대학 조리예술과 학생들 대상 ‘돼지고기 요리 베스트 10선’ 요리 실습 및 최영열 회장 강의



“국내산 돼지고기가 맛도 영양도 으뜸입니다.” “특히 뒷다리살, 안심, 등심은 저지방 고급부위로 앞으로 여러분의 요리에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본회 최영열 회장은 서울보건대학 조리예술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요리 베스트 10 전시·시식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2004년 양돈자조금 사업에 의거 본회와 농협중앙회가 주최하고,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주관 아래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미래의 돼지고기 소비문화를 이끌어갈 조리예술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요리 전시·시식회를 개최했으며, 학생들은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제 실습을 통해 돼지고기 수출부위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주관으로

서울보건대학교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서울보건대학 조리예술과는 450여명의 미래의 조리사들이 각종 요리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

미래의 돼지고기 소비문화를 이끌어갈 조리예술과 학생들에게 서울보건대학 조리예술과 학과장 신미혜 교수는 한식 돼지고기 요리 중 돼지고기 사태조림, 돼지고기 전통편육, 돼지고기 채소무침, 돼지고기 된장양념구이 요리 방법을 지도했으며, 나영아 교수와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은 돼지고기 튀김과 오렌지 소스, 돼지고기 찹스테이크, 돼지고기 오븐구이 및 돼지고기 생강스까야끼 등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했다.

## 본회 제2검정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성료

- 10월 11일 개최된 170차 경매에 양돈농가 500여명 참석



▲ 제9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에서 최우수 농가상을 수상하고 있는 완주지부 유명빈 회원(우측은 이재식 부회장)

본회 공인 제2종돈능력검정소(경남 하동)가 10월 11일(월) 개최한 제170차 검정돈 경매 및 제9차 구

입자 보은의 날 행사에 양돈농가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에 경매돈을 최다 구입한 완주지부 유명빈씨가 최우수 양돈농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양돈농가에는 나주지부 나상열씨, 산청지부 조태영씨, 정읍지부 황

윤호씨가, 모범 양돈농가에는 광양지회 양보석씨, 경주지부 김영우씨, 화순지부 유희상씨가 수상하고, 최우수AI센터에는 호남AI센터 김기훈씨, 우수AI센터에 백월AI센터 한흥재씨, 모범AI센터에는 경북AI센터 한용호씨, 동부SEMEN BANK 신창엽씨가 수상했다.

이날 참가한 여성 양돈인들에게는 특별선물을 증정했으며, 경매돈 구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현대 1톤 화물자동차, 가전제품 등 경품 추첨행사도 가졌다. 한편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1리 278번지 이재성씨(청도지부 회원)가 행운의 1톤 화물자동차에 당첨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날 이재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검정소의 검정돈들은 우리 양돈협회가 공인하고 보증하는 우수한 돼지들로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 만큼 농가들이 믿고 구입해 농장 생산성 향상에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우리나라 돼지 검정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양돈협회에서 검정·보급하는 돼지가 종돈개발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이 믿고 구입해 농장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1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93만 7천원

9월 20일(월) 본회 공인종돈능력검정소 제1검정소(경기 이천) 제241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 낙찰가는 93만7천532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매에서는 수퍼돈 3두를 비롯해서 최우수돈 9두를 포함 총 160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58두가 낙찰됐으며,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96만8천492원(126두), 암

컷 평균 낙찰가는 81만5천625원(32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0점) 슈퍼돈이 경남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 974번지 대성FINE 양철씨에게 최고가인 450만원에 낙찰, 경기양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슈퍼돈이 충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 3-2번지 당진AI센타 신민호씨에게 최고가인 450만원에 낙찰됐다. 그밖에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71점) 슈퍼돈이 4백35만원에 낙찰되는 등 낙찰총액은 1억4천813만원을 나타냈다.

## 제2검정소, 검정돈 낙찰가 평균 112만원 돌파



▲10월 11일 개최된 제170차 검정돈 경매 장면

10월 11일 (월) 본회 공인 종돈능력검정소 제2검정소(경남 하동) 제170차 검정돈 경매에서 검정돈 평균낙찰가는 112만214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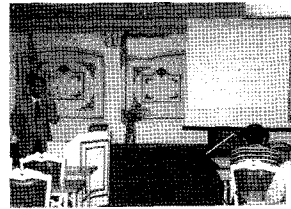
이날 경매에서는 슈퍼돈 2두를 비롯해 최우수돈 12두를 포함 총 187두의 합격돈이 상장된 가운데 187두 모두 낙찰돼 양돈농가들의 높은 종돈 입식 열기를 보여줬다.

이중 수컷 평균 낙찰가는 116만7천289원(166두), 암컷 평균 낙찰가는 68만6천38원(21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문경FINE 듀록 수컷(선발지수 285점) 슈퍼돈이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항리 77-1번지 한흥재씨(백월양돈 AI센타)에게 최고 낙찰가인 460만원에

낙찰됐으며, 그밖에 삼광종돈 듀록 수컷(선발지수 286점) 슈퍼돈이 4백만원에 낙찰되는 등 총 낙찰금액은 2억8백68만원을 기록했다.

## 도협의회 및 지부소식

### 제주 서남지부, 자돈 사양 관리 관련 세미나 개최



제주 서남지부(지부장 손용조)는 9월 10일 남제주축협 회의실에서 '자돈 사양관리 및 돈사 환기시설' 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CJ사료 황성운 부장이 강사로 강의를 실시해 총23명의 참석자들에게 자돈 사양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서남지부는 지난 8월에 제주 해양경찰서의 주관 아래 해양투기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서남지부는 9월 24일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단체기관에 돼지고기를 전달했다.

### 연천지부, 액비사업 관련 등 논의

연천지부(지부장 윤상협)는 9월 15일 9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액비 종금속 검출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사 및 농촌진흥청 비료공정 규격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에 따른 본회의 대응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부 회원들이 액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

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울산지부, '양돈산업 전망 및 비전' 교육 실시

울산지부(지부장 이상국)는 9월 16일 11시 지부 사무실에서 이상국 지부장 외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은 정P&C연구소 안기홍 컨설턴트의 세미나를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센타 및 폐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기홍 컨설턴트의 '향후 양돈산업의 전망 및 비전 제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들어 뜻깊은 월례회를 마무리했다.

## 밀양지부, '백신접종 올바른 사용방법 설명회' 가져

밀양지부(지부장 양대식)는 9월 20일 지부 사무실에서 9월 월례회의를 개최해 본회 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대식 지부장 외 회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화이자'에서 "백신 접종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혼합백신 및 분노차량 지원 등 밀양시 지원 요구사항에 대해 토의했다.

## 영천지부, PMWS등 소모성 질환 대비 철저

영천지부(지부장 김성곤)는 9월 23일 지부 사무실에서 손갑석 부지부장 외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갑석 부지부장은 필리핀 방문 내용

을 보고하고, 필리핀 양돈현황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밖에 물과 공기의 효능에 대해 덧붙이면서 효율적인 사육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영천지부는 애니멀클리닉컨설팅의 조강모 강사를 초청해 '소모성 질환 3P(PMW S, PRDC, PED)를 줄이자'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 여주지부, 소독 및 돈열 예방접종에 철저

여주지부(지부장 김건호)는 9월 23일 소양로 가든 2층 회의실에서 9월 월례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건호 지부장과 회원 40여명이 모여 본회 활동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각 농가에서 환절기를 맞아 소독을 철저히 하고, 돈열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 양주지부, 양돈업등록제 검토 및 돈가 전망 관련 세미나 개최

양주지부(지부장 조운상)는 10월 13일 지부 사무실에서 조운상 지부장과 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돈업등록제에 관해 등 록시 필요한 건축물 대장, 축사 배치도 등 신청서류에 관한 안내 및 검토가 있었으며, 11월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행사 홍보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주)선진 염동민 팀장의 '최근 시장 동향 및 향후 돈가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회원들은 하반기 돈가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양돈**